



2023.12.28.(목)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성명서

담당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연락처 : 010-8863-0389
(문의) : 02-6788-3618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소상공인 예산 약 9,200억 원 국회 증액 통과 환영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 원은 지역상권 생명수 될 것

2024년 새해 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총 9천215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어 통과되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 저성장의 혹독한 경제 환경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땀과 열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예산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는 데 3천억원, 영세 소상공인의 난방비 전기료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지원 2천520억원, 온누리상품권도 695억원을 늘리면서 사용처를 골목형상점가까지 늘렸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예산이 3천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매우 환영한다. 정부여당은 당초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안에서 0원으로 제출하였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7천억원으로 상정하였으나 정부 여당은 4천억원을 삭감했다.

우리는 7천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고, 3천억원으로 축소된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정부여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처사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줄었다. 2023년 3천525억원,

2024년 3천억원 편성에 불과하다. 반면 2022년 문재인 정부에는 1조4천 52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지역화폐는 골목으로 대표되는 지역상권 기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예산이다. 거대 온라인쇼핑몰, 복합쇼핑몰에 잠식당한 지역 상권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하다. 눈물의 생존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민여론은 매우 호의적이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연구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으며, 9명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지역화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78.4%나 되었다.

부산 소상공인의 91.1%가 지역 화폐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인천에서는 2/3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정책에 만족하였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지역화폐 예산만큼은 2024년 추경 시 반드시 대폭 증액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28.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